

저자 (Authors)	김영태 Young Tae Kim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5</a> , 1967.12, 53-83(31 pages) <a href="#">BUL GYO HAK BO 5</a> , 1967.12, 53-83(3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89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898</a>
APA Style	김영태 (1967). 신라 진흥대왕의 신불과 그 사상 연구. 불교학보, 5, 53-8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2 09:5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新羅 眞興大王의 信佛과 그 思想 研究

金 煥 泰

## 차 례

緒 言	2. 眞興王의 佛敎思想
I. 眞興王의 信佛과 그 業績	(1) 國仙·花郎의 思想根柢
1. 眞興王과 佛敎와의 關係	(2) 轉輪聖王思想과 巡狩碑文에서 볼 수 있는 思想(眞興王의 國家觀과 政治思想)
2. 眞興王의 佛敎業績	III. 皇龍寺丈六說話와 眞興王의 佛敎的 位置
II. 眞興王 및 當時의 佛敎思想	1. 說話와 그 內容·思想
1. 當時의 佛敎思想	2. 眞興王의 佛敎的 位置
(1) 斯多舍의 思想的 背景	結 語
(2) 百高座講會와 八關齋會思想	

## 緒 言

三國時代에 高句麗를 비롯하여 傳來된 佛敎는 오래지 않는 동안에 온 民族의 信仰을 받고 擧國의인 歸依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史料의 缺如 때문에 高句麗와 百濟佛敎의 眞相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稀少한 資料들에 의하여 겨우 初期佛敎의 面貌를 짐작할 뿐이다. 이러한 初期佛敎의 現象을 그래도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新羅를 통해서라고 할 것이다. 文獻과 史料 考證의 不充分은 新羅도 마찬가지이기 는 하나, 高句麗·百濟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新羅의 佛敎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가장 初期的이며, 그 重要性에서 比重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眞興王의 佛敎信仰일 것이다. 新羅 뿐 아니라, 全韓國의 佛敎史를 통하여 眞興王의 佛敎는 그 歷史性에서나 價値面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손꼽지 않을 수 없고 다루지 않을 수 없는 問題라 할 것이다.

一般史的인 位置에서 보더라도 眞興王의 歷史的 存在는 여러 모로 重大한 問題를 提示해 주고 있다. 三國 중 가장 不利한 條件과 位置에서 제일 弱小國이던 新羅가, 三國 중 가장 強國으로 끝내는 統一을 成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原動力이 眞興王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英主로서의 眞興王도 偉大하지만, 보다는 그는 佛敎信奉으로

써 新羅文化를 大興시키고, 新羅의 國民思想을 開發하여 民族文化에 큰 貢獻을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眞興王의 一代를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는 佛教關係를 現存의 文獻 資料에서 한데 모아 整理하는 한편, 民族文化史의 위에서나 新羅佛教 나아가서 全韓國佛教에 있어서의 그 位置를 究明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眞興王佛教의 歷史성과 文化史의 그리고 思想的 價値를 考察하려는 데에 本意가 있다. 그러므로 眞興王 當代에 있어서의 佛教史實까지도 모두 網羅하여 王의 信佛과 佛教思想을 좀 더 全面的으로 살펴 보려고 試圖한 것이다.

## I. 眞興王의 信佛과 그 業績

### 1. 眞興王과 佛教와의 關係

眞興王은 新羅 第24代 王으로서 이름은 丕麥宗 또는 深麥夫이며, 法興王의 뒤를 이어 幼年<sup>1)</sup>에 即位하였다. 王의 父는 法興王의 弟 立宗曷文王이며, 母는 法興王의 公主<sup>2)</sup>였다.

王이 佛教를 어느 程度 信奉하였으며, 어떠한 關係가 있었는가를 端的으로 보여 주는 것에 다음의 글이 있다.

“王은 어려서 即位하여 一心으로 奉佛하였으며, 末年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僧服을 입어 스스로 法雲이라 號하였다.”<sup>3)</sup>

“即位하고 伯父 法興王의 志를 思慕하여 一心으로 奉佛하고 널리 佛寺를 이르키며 國人을 度하여 僧尼가 되게 하였다.”<sup>4)</sup>

이러한 記錄은 모두 極히 簡略하게 眞興王의 一生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의 信佛의 生涯를 가장 簡要하게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王의 篤信한 奉佛事實과 廣興佛寺한 佛教事業 그리고 度人爲僧尼하여 佛法을 大興시켜 佛教思想을 國家化시킨 所以를 볼 수 있다.

眞興王의 奉佛事實을 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의 信佛이 어떻게 해서 可能했는가 하는 原因에서부터 살펴 볼 必要가 있다. 佛教와 어떠한 關係가 있고, 信佛에의 어떠한 必然性이 있었던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三國遺事의 引文인 “伯父 法興王之志를 慕하여 一心奉佛했다”는 것에 의한다면, 法興王의 影響으로 佛教를 信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同時에 眞興王 崇佛의

1) 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第四 眞興王에는 7歲에 即位했다고 있으며, 三國遺事 卷一 紀異第二 眞興王에는 15歲에 即位했다고 있다.

2) 三國遺事 王曆第一 第24眞興王에 王의 母를 只召夫人이라 했다.

3) 三國史記 眞興王 末年의 謄 끝에

4) 遺事 卷三 塔像第四 彌勒仙花 末尸郎 眞慈師의 眞興王 花郎始奉 事實 初頭.

原因은 法興王의 興佛에 있었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眞興王이 思慕했던 法興王의 志(興佛의 志)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보지 않을 수 없다. 곧 眞興王의 奉佛은 法興王의 信佛과 直通하는 聯關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法興王의 興佛事實은 바로 眞興王의 信佛을 알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新羅에 佛敎가 처음 들어 온 것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물론 法興王 即位 훨씬 以前인 것만은 틀림없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에 傳하는 諸資料를 통해서 우리는 新羅에 佛敎가 傳來된 年代를 四種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1) 第13代 未離王 2年(263)에 高句麗人으로 僧이 된 我道가 왔다.<sup>5)</sup>

(2) 19代 訥祗王 時(417~458) 沙門 墨胡子가 高句麗에서 一善郡 毛禮家에 이르렀다.<sup>6)</sup>

(3) 21代 毘處王 時(479~500) 阿道가 侍者 三人과 같이 毛禮家에 왔다.<sup>7)</sup>

(4) 梁 大通 元年(法興王 14年, 527) 3月 11日에 阿道가 毛禮家에 왔다. 이 때 毛禮는 阿道에게 高僧 正方과 滅垢毗가 오래 전에 왔다가 殺害 당했다는 말을 했다.<sup>8)</sup>

이와 같이 古記 文獻를 통하여 우리는 佛敎傳來史實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傳來의 正確한 年條를 알 수 없다. 各各 그 所傳이 人物과 事件은 거의 同一하면서도 그 時代가 重疊을 수 없이 差異가 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法興王 即位 이전에 많은 曲折과 傳法高僧들의 殉敎(正方·滅垢毗 等例) 등으로 끊임없는 傳法布敎의 努力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緣由에 의하여 新羅人들은 모르는 사이에 佛法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信奉者가 생겨 났을 것이다.<sup>9)</sup> 이렇게 하여 비록 國家에서는 公公然한 信仰을 禁하여 表面的인 信奉은 不可能했지만, 內面으로는 佛敎信奉者가 생기고 佛法을 理解하게 될 되었을 때 쯤 해서 法興王이 即位하였을 것이다.

法興王이 即位하자 곧 佛法을 일으키고자 苦心했다는 史實들<sup>10)</sup>에서 法興王도 即位하기 전에 이미 佛敎를 꽤 잘 理解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往往有信奉者”<sup>11)</sup>라는 記錄에 의한다면 당시의 信佛이 一善郡 毛禮家를 中心한 一部地域의 小範圍로 보기 쉽다. 그러나 法興王과 異次頓 같은 最高의 知性人이며 最上의 貴族인 王族으로서도 그토록 깊이 佛敎를 信解했다는 것에서 보면, 一部地域의 몇 사람만의 信奉이 아니라 많은 新羅人들이 佛敎를 理解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時代性과 社會相이기 때문에 法興王은 佛法을 일으켜서 國民의 安心立命과 國家의 興福을

5) 遺事 興法第三 阿道基羅에 收錄된 ‘我道本碑’와 海東高僧傳 釋阿道傳의 所載인 ‘朴寅亮 殊異傳’에서.

6) 史記 卷四 法興王 15年條에 있는 것을 海東高僧傳 流通一 釋阿道傳과 遺事興法第三 阿道基羅에서 모두 引用하여 傳하고 있다.

7) 同上 墨胡子の 事에 곧 이어서 있다.

8) 海東高僧傳 釋阿道에서 引用한 ‘古記’

9) 前揭 註⑥의 阿道和尙 事實

“阿道……住數年 無病而死 其侍者三人留住 講讀經律 往往有信奉者”에서 볼 수 있다.

10) 史記 法興王 15年, 遺事 興法第三 原宗興法 厭觸滅身, 海東高僧傳 釋法空

11) 註 ⑨

企圖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頑固한 衆臣들의 反對로 뜻을 펴지 못하다가 王의 從姪<sup>12)</sup>인 青年 異次頓의 殉教에 의하여 王의 即位 14年(527)에 비로소 뜻을 펼 수 있었다. 이리하여 新羅에서는 佛教를 公公然히 信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듬해, 王은 壽命을 내려 殺生을 禁했다는 記錄이 보일 뿐, 그 뒤에는 어떻게 奉佛하고 獎勵했는지 알기 어렵다. 王의 21年(534)에 興輪寺를 興工했다고 있으며, 그 뒤 寺院이 거의 이루어지자 王은 스스로 沙門이 되어 宮戚을 寺隸로 삼고 興輪寺에 住하면서 弘化에 힘썼으며, 王妃 역시 比丘尼가 되어 永興寺를 創하여 住하였다고 한다<sup>13)</sup>. 이상이 法興王의 信佛事實이다.

그리고 眞興王은 家族의으로도 佛教와 因緣이 重한 關係라 할 것이다. 王의 父 立宗 曷文王은 法興王의 弟이며, 그의 母는 法興王의 公主이다. 佛法을 비로소 新羅에 일으킨 法興王은 그의 伯父이자 外祖父가 된다. 또 王이 어려서 攝政했다는 王太后는 그 書法대로 한다면 前王의 后妃이므로 法興王의 妃로서 眞興王에게는 伯母 또는 外祖母가 된다. 그러나 遺事 卷一의 眞興王條에서는 攝政太后를 王母라 明記하였고, 이어서 終時에 削髮하고 法衣를 입고 僧이 되었다가 돌아갔다<sup>14)</sup>고 있다. 그러므로 王의 母도 信佛者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王太后가 法興王의 妃이건 眞興王의 生母이건 간에 信佛者라는 立場은 變動이 없으므로 어린 王의 敎育에 佛教的 影響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可能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眞興王의 信佛은 그 歷史성과 環境의 條件에 비추어 너무나 當然하고 必然的인 事實이었다고 할 것이다. “佛教를 大興하여 邦家の 福을 받들겠다”는 阿道(모든 傳法高僧)의 本心(念願)과, “蒼生을 위하여 國家의 道를 일으켜서 國民의 安心立命處를 만들겠다”는 法興王의 興佛의 깊은 뜻이 이제 은 新羅에 퍼져 갈 무렵에 새로이 即位한 眞興王은 그 時代의 使命感과 政治的 必然성과 歷史性 등에 잘 適應하여 崇佛의 王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우리는 眞興王이 佛教를 信奉하게 된 데에는 家庭的의로나 時代的 社會的 政治的으로 모두 깊은 關係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眞興王의 佛教業績

眞興王의 佛教業績을 보기 위해서 먼저 文獻에 있는 史實들을 年代順으로 列擧하려 한다.

- 12) 遺事 興法三 厭觸滅身に 보면 異次頓의 祖父 阿珍宗은 智證王의 子라고 있다. 史記 卷四 智證王'에 보면 智證王은 智證王의 父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우리는 法興王의 父王인 智證王과 異次頓의 祖父인 阿珍宗과는 兄弟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異次頓은 法興王의 從姪이 된다.
- 13) 忽漚谷快天 著, 朝鮮禪敎史 p.41에는 法興王과 그 妃 出家事實을 誤謬로 보고, 眞興王의 出家事實과 混同해서 記錄한 것이라 하여 法興王의 出家를 否認하고 있다.
- 14) 遺事 卷一 紀異第二 眞興王에 있는 “終時 削髮被法衣而逝”의 句節은 太后의 事實繼續으로 보기 쉬우나 자세히 보면 “立宗曷文王之妃”에서 一旦 끝나고, 이 句節은 眞興王을 가리킨 것 같다. 특히 史記에 있는 “一心奉佛 至末年祝髮被僧衣”와 같은 記事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더라도 眞興王의 母는 그의 父王母后의 信佛로 미루어 역시 信佛했으리라 推測된다.

왕의 5년(544) 2월에 興輪寺가 完成되었다. 이 興輪寺는 法興王 21년(534)에 興工하였다 하니 11년이 지나 걸려서 完工한 셈이 된다. 3월에는 國人에게 出家를 許하여 僧尼가 되어 奉佛케 하였다.

10년(549) 春, 梁에서 使臣과 入學僧 覺德으로 하여금 佛舍利를 보내어 오게, 王은 百官에게 興輪寺 前路에서 佛舍利를 奉迎케 하였다.

11年, 安藏法師를 大書省으로 삼았다.

12年(551), 高句麗의 高僧 惠亮이 新羅 將軍 居柒夫에 의하여 新羅로 오게, 王은 惠亮法師를 國統으로 삼고, 寶良法師를 大都維那로, 阿尼로써 都維那娘으로 삼았다. 이에 惠亮은 百座講會와 八關法을 비로소 시작하였다.

26年(565), 陳에서 使臣 劉思와 僧 明觀으로 하여금 經論 1,700餘卷을 보내어 왔다.

27年 2月, 祇園寺와 實際寺가 이룩되고, 同年에 皇龍寺도 完成되었다. 皇龍寺는 앞서 14年(553)에 王이 月城의 東에 新宮을 짓게 했을 때, 그 땅에서 黃龍이 나타났으므로 王은 생각을 바꾸어 佛寺를 짓게 하고 寺號를 皇龍寺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14년에 着工하여 이 때 完成을 보았으니 14년이 지나 걸려서 지은 셈이 된다.

33年(572) 10月 20日에 戰死士卒을 위하여 八關筵會를 外寺에서 베풀어 7日만에 罷하였다.

35年 3月, 皇龍寺 丈六像을 鑄成하였는데, 銅 重 35,007斤, 鍍金 重 10,198分이 들었다.<sup>15)</sup>

37年(576), 安弘法師가 隋에서 求法하고 돌아오면서 印度僧 毗摩羅 등 二僧과 함께 왔는데, 그는 王에게 稜伽經과 勝鬘經 그리고 佛舍利를 바쳤다.

同年 8월에 王은 薨去했는데, 돌아가기 전에 王은 祝髮하고 僧衣를 입어 法雲이라 自號하여 沙門의 生活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王의 佛敎關係史實만을 現傳하는 文獻의 範圍 안에서 간추려 보았다. 여기에 나타난 王의 佛敎事業을 分類하여 ① 佛寺 創建, ② 僧尼의 養成, ③ 留學僧 往來 ④ 佛舍利 傳來와 經論의 輸入, ⑤ 敎團 統管의 僧職制 創始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佛寺 創建은 眞興王의 佛敎事業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다. 法興王이 비록 佛敎를 信奉하고 興法하였다 하더라도 佛敎信仰의 根本道場인 寺院이 없어서는 奉佛行事는 不可能할 것이다. 法興王이 興輪寺를 創建했다 하나 그 完成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직도 寺院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眞興王 5년에 興輪寺를 完工하므로써 비로소

15) 遺事 卷三 塔像第四 皇龍寺丈六에는 印度의 阿育王이 三尊像을 鑄造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巨觔에다 黃鐵 57,000斤과 黃金 30,000分을 실어 바다에 띄운 그 金鐵이라고 있다. 그리고 本尊 外에 左右 兩菩薩像에 鐵 12,000斤, 黃金 10,136分이 들었다 한다.

新羅에 寺院이 세워진 것이다. 이어서 皇龍寺를 짓고 祇園寺·實際寺 등을 創建한 것이다. 이들 寺院은 全新羅를 통하여 가장 巨大한 寺院에 속하였고, 新羅 一代를 통한 代表的인 佛敎道場이었다. 특히 十餘年의 오랜 歲月을 所要하고 完成한 大王興輪寺와 皇龍寺는 創建 以來로 國亡에 이르기까지 國家信仰의 根本道場이 되었던 가장 中心되는 큰 寺院이다. 그리고 記錄되어진 것으로는 이상 四寺와 永興寺를 합하여 眞興王代의 創寺로서 五個 寺院의 이름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王의 33년에 戰死者를 위하여 八關會를 設했을 때 外寺에서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王城 안에 位置한 앞의 五大寺院 外에도 城外에 寺院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로 미루어서 當時 城內外에 적지 않은 寺院이 세워졌으리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어쨌든 新羅佛敎史上 最大의 比重을 차지했던 大寺院이 이 때 세워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眞興王의 佛敎事業의 性格의 價値와 規模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무리 佛敎가 國家에 利益을 주고 또 崇高한 信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學究하고 信仰하고 理解하는 者가 없으면 佛敎는 그 存立이 不可能한 것이다. 佛敎를 弘布하고 그를 修行하고 信奉할 道場인 寺院이 훌륭하게 세워졌다 하여도, 이것을 營爲하고 修奉할 僧侶가 없으면 아무 所用이 없다. 여기에 修奉者의 重要性이 있다. 물론 佛敎가 있고 寺院이 있으면 거기에는 修奉沙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門戶를 開放하고 國家의 뒷받침 있는 制度에 의한 修奉者의 輩出이라면 더욱 佛敎는 興할 것이다. 法興王 때에도 僧侶가 되는 것을 禁하지는 않았겠지만, 國家의인 뒷받침이 없었고, 國王의 積極的인 許可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眞興王 5년에야 國人의 出家를 許하고 自由로 이僧尼가 되어 奉佛케 한 것 같다.

(3) 國民에게 僧尼될 길을 터 주자 뜻있는 僧侶들이 佛敎의 傳授國인 中國으로 求法留學을 간 모양이다. 王의 10년에 돌아온 覺德을 비롯하여 明觀<sup>16)</sup>·安弘<sup>17)</sup>등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이로써 新羅의 僧侶들은 國內에서의 學法에 滿足하지 않고 끊임없이 求法의 길을 떠났으며, 또 法을 배워서 돌아왔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도 初期的인 당시 新羅의 事情으로 미루어 王의 保護와 獎勵가 뒷받침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佛陀 入滅後 그 舍利를 서로 받들어 모시고자 八國의 王이 爭奪戰까지 일으킬 번하다가 끝내는 八分하여 각기 모시고 塔을 세워 받든<sup>18)</sup> 뒤로부터 佛舍利는 信佛者들에 있어서 佛의 眞身과 같이 尊崇되어 왔다. 이러한 佛舍利를 眞興王 10년에 陳에서 보

16) 史記와 遺事의 “陳遣使劉思與僧明觀”이라고 한 것으로는 陳僧인지 新羅僧인지 分明하지 않다. 그러나 海東高僧傳 流通一之二 覺德傳 附에는 “入學僧 明觀”이라 하여 新羅僧으로 하여 있다.

17) 海東高僧傳 釋法雲傳에는 安弘이라 하였으며, 流通一之二에 釋 安弘의 別傳을 두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安弘(安弘)은 眞平王代 高僧으로 되어있어 史記의 記錄과는 다르다.

18) 佛說長阿含經 第一分 遊行經後(大正藏經 第1卷 pp.23~30) 및 佛般泥洹經, 大般涅槃經, 般泥洹經 등의 分舍利 故事

내어 온 것이다.<sup>19)</sup> 그 뒤 末年에 安弘이 또 舍利를 王에게 바쳤다.

그리고 26년에는 陳에서 經論 1,700餘卷을 보내어 왔다. 물론 이 前에도 佛經이 들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많은 經典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것은 新羅의 佛敎에 있어서 큰 利得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佛舍利와 經典이 傳來된 것은 梁과 陳에서 보내어 온 것이지 王의 業績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眞興王의 奉佛이 없고 興法이 없었다면 누가 舍利를 보내 주며 大量的 經典을 보낼 것인가? 이는 모두 王의 信佛에 緣由된 것이므로 王의 業績으로 쳐도 無理는 아닐 것이다. 또 佛舍利가 들어와 信仰心이 굳혀지고 經典이 들어와 깊은 研究를 더하게 됨으로써 王의 信佛과 當時의 佛敎가 힘있고 새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5) 王의 佛敎業績中 特殊한 것의 하나로서 僧職制의 設置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만 僧職을 實施했다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佛敎의 整理에 큰 役割이 되었다는 데에 뜻이 있을 것이다. 王의 11年(550)에 安藏法師으로써 大書省을 삼았으며, 12년에 高句麗에서 온 惠亮法師을 國統(僧統·寺主)으로, 寶良法師으로써 大都唯那를, 阿尼으로써 都唯那娘<sup>20)</sup>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後로 新羅에서는 國統·大都唯那·大書省·小書省<sup>21)</sup>등의 制가 繼續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眞興王의 僧政을 볼 수 있다. 王은 막연하게 奉佛한 것이 아니라 寺院을 일으키고, 僧侶를 保護 獎勵하고, 새 文物을 받아 들여 文化事業을 하면서, 佛敎敎團의 整理를 위하여 僧團機構를 整備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길이 佛敎가 國敎로서의 位置를 잃지 않고, 國民思想을 醇化시킬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王은 철저히 佛敎를 獎勵하고 信奉한 護法의 王이었다.

王은 또 佛敎理念에 의해서 佛敎思想의 創意的 應用으로 靑少年 修養團體인 風月(花郎)道를 創設하여 國民思想 確立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리고 現存한 王의 巡狩碑에서 王이 巡行 때에는 沙門을 同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沙門의 이름을 隨駕 百官大臣의 옷머리에다 記하고 있다.<sup>22)</sup> 이것에서도 王의 佛敎에 대

19) 史記와 海東高僧傳에는 “梁遣使…”라고 있어 使의 名을 알 수 없는데, 遺事 興法第三 原宗興法 및 同書 塔像第四 前後所將舍利에는 “梁使沈胡”라고 名記되어 있다.

20) 朝鮮史學會 編(昭和 16年版) 三國史記 p.419에는 “都唯那娘一人 阿尼大都唯那一人 眞興王始以寶良法師爲之”라 하였는데, 이것은 前後를 맞추어 보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阿尼”는 “都唯那娘一人” 다음에 속하고 “大都唯那”와는 別個의 것이다. “都唯那娘一人 阿尼 大都唯那一人…”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國統一人에 惠亮法師로, 大都唯那一人에 寶良法師을 삼았다는 등의 境遇와는 달리 이 阿尼는 全文의 筆法으로 미루어 人名이 아니고 代稱인 것 같다. 생각컨대 阿尼는 다른 用法(例하면 阿尼帖)등에서 보아 比丘尼의 元老에 대한 敬稱인 것 같다. 이렇게 推測한다면 이 때 攝政을 그만두고 比丘尼가 된 王母를 都唯那娘으로 삼아 女僧界를 統率하게 한 것이 아닌가도 싶다. 遺事에는 都唯那娘이 없다.

21) 遺事에는 “小書省”이라 있고, 史記에는 “少年書省”이라 있다. 少年書省은 二人으로 두었는데 元聖王 3年에 惠英과 梵如 二法師로 삼았다는 史記의 記錄으로 보아 이 少書省은 眞興王 때에는 두지 않았던 것 같다.

22) 眞興王의 巡狩四碑中 黃草嶺碑와 磨雲嶺碑에 名記되어 있다.

한 態度를 짐작하게 한다.

또 眞興王 王子들의 이름에서 金輪·銅輪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佛教名이므로 王의 佛教를 研究하는 데에 좋은 參考가 된다.

## II. 眞興王 및 當時의 佛教思想

### 1. 當時의 佛教思想

眞興王의 佛教思想을 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당시의 佛教思想을 먼저 볼 必要가 있다. 오랜 동안의 傳來經路를 거쳐 眞興王에 이른 新羅佛教이므로 적지 않은 經典의 研究와 信仰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1,700餘卷이라는 多量의 經典이 一時에 傳入된 것으로 보아도 많은 經典이 들어와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經典의 種類와 名目들을 알 수 없으니, 어떠한 經典이 研究되고 어떻게 信奉되었는지 알 도리가 전혀 없다. 安弘法師가 留學에서 돌아와 王에게 바쳤다는 稜伽와 勝鬘의 經名이 보이는 것은 하나, 이는 王의 末年 昇遐 直前의 일이므로 問題圈 外에 屬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當時의 佛教思想을 알기 위하여 當時의 佛教行事와 社會的인 事情 등에서 類推할 道理 밖에 없다. 우리가 우선 볼 수 있는 百高座와 八關會, 그리고 花郎·國仙 등에서 當時의 經敎와 佛教思想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當時의 佛教를 考察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은 斯多舍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斯多舍에서 엮여지는 當時 新羅의 佛教思想을 보고 나서 百高座會 등의 佛教思想을 차례로 考察기로 하자.

#### (1) 斯多舍의 思想的 背景

三國史記에 있는 斯多舍의 이야기<sup>23)</sup>를 보면,

斯多舍은 眞骨系 出身으로 奈密王 七世孫이며, 父는 仇梨知級飡이다. 그는 貴族子弟답게 風標가 淸秀하고 志氣가 方正하여, 그 때 사람들로부터 尊敬을 받아 花郎으로 받들리었다. 그는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花郎이 되었는데, 그의 徒가 무려 1,000人이나 되었다. 그는 모든 徒衆들에게 歡心을 얻었다. 그 때 眞興王이 異斯夫에게 命하여 加耶國을 치게 하였는데, 당시 15,6세인 花郎 斯多舍은 從軍할 것을 請하였다. 王은 그가 아직 어리다 하여 從軍을 許하지 않았으나, 하도 그 請이 지극하고 뜻이 確固하므로 드디어 從軍을 許하고 貴幢裨將을 삼았다. 그가 從軍하게 되자 그의 徒衆들도 從軍하는 者가 많았다. 이리하여 出戰한 斯多舍은 境界에 이르러, 元帥 異斯夫에게 先鋒이 될 것을 自請하여 許諾을 받고는 5,000騎를 이끌고 먼저 쳐들어가 城門 위에다 白旗를 꽂았

23) 史記 卷四 眞興王 23年 및 卷四四 列傳第四 斯多舍

다. 이로 因하여 新羅는 大勝을 거두었다. 그의 뛰어난 이 戰功에 王은 기뻐하고 捕虜 300人과 良田을 賞으로 내렸다. 그때 斯多舍은 세 번이나 사양했으나 王의 強勸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斯多舍은 받은 捕虜를 모두 良民으로 解放시키고, 田地는 良田 대신에 不毛의 땅을 自請해 받고는 그것도 戰士들과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그는 일찌기 벗 武官郎과 生死를 같이할 것을 約束하였는데 武官郎이 病으로 죽게 되자, 極甚히 慟哭하다가 그도 따라 죽었다. 때에 그의 나이 17세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斯多舍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點을 보게 된다. 즉 아직도 어린 나이에 스스로 出戰을 自願하여 先鋒으로 戰功을 세우고, 國王이 내리는 賞을 사양하고, 그 賞을 받기는 했으나 300名이라는 奴僕을 모두 良民이 되게 놓아 주었고, 또 良田 대신 不毛의 땅을 自請해 받고는 戰士들과 나누어 가졌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生死를 같이 하고자 盟約한 벗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 등은 흔히 있을 수 있는 平凡한 所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新羅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氣魄(勇氣와 霸氣), 謙讓, 慈悲와 平等, 無貪寡欲, 奉仕, 極한 信義 등의 思想을 보게 된다.

이것이 어찌서 佛教思想에서 온 것이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대로 佛教思想에서 나온 것이라 보아 大過 없을 것이다.

戰場에 나가 싸우라는 明文은 經典에 없지만, 어떤 事象에 積極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佛教에 있다. 옳음을 보았거든 身命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正法을 위해서는 不屈의 勇氣와 霸氣로 臨한다던가, 學道에 있어서 前境을 두려워 말고 精進勇銳하게 衆魔를 破滅해야 한다는 등의 例는 佛典의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싸움에는 그토록 勇敢하던 그가 論功行賞에는 더없이 謙讓하는 것은 少年으로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相을 내세우지 않는 佛教精神, 즉 無住相心의 發露다. 더구나 많은 奴僕을 自由人으로 놓아 주었다는 것에서도 崇高한 菩薩의 平等思想을 보게 한다. 當時의 新羅에서 奴僕을 自由人으로 解放시켰다는 것은 佛教의 慈悲와 平等思想의 영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四姓制度가 철저하던 印度社會에서 萬民平等을 부르짖은 佛教는 四姓階級을 無視하고 人類無差別의 平等思想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新羅의 花郎 斯多舍도 300名의 捕虜(奴隸)를 良民으로 解放시킨 것이다. 그리고 良田을 마다하고 不毛地를 自請하여 그것까지도 혼자 갖지 않고 戰友들과 나누었다는 것은 無貪寡欲의 清廉한 佛教의 菩薩行인 實踐面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벗과의 言約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는 것도 信義가 지나치게 두터웠음을 보여줌이라 하겠는데, 이는 信義만으로는 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 역시 生死를 超越하는 佛教思想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우연한 一致였든지는 모르지만 斯多舍이라는 그의 이름도 佛教的인 것 같다. 小乘佛

敎에 있어서 修道의 四果 가운데 第二에 一來果가 있다. 이것을 陀斯舍(Sacridāgamin)이라 한다. 이는 修行의 結果로 死後에 天上에 갔다가 다시 人間으로 한번 더 와서 涅槃을 證得하게 된다<sup>24)</sup>는 것인데, 이것이 果然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斯多舍의 이름과 同音인 것이다. 斯多舍의 生涯와 斯陀舍果의 人間界 一來의 思想과는 어딘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興味있는 問題라 하겠다. 四果 가운데에서, 다시 人間界에 태어나지 않고 天上에서 證悟한다는 阿那舍이나, 天上에까지 갈 것 없이 煩惱를 斷盡하고 成道하는 阿羅漢을 택하지 않고, 人間界에 다시 온다는 斯陀舍를 취한 理由를 구대여 찾는다면, 新羅人의 強한 現世利益思想과, 未完을 補完하려는 花郎 修養의 根本이 된 彌勒思想에 의하여 보나 나온 新羅를 建設하겠다는 뜻이 內包된 것이 아닐까 본다. 斯多舍의 이름은 이와 같이 空想에 가까운 推理도 可能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겠다.

어쨌든 新羅의 歷史나 당시 社會性으로 보아 斯多舍이 보여 주는 이름이나 그 超凡한 生涯는 佛敎의 修養과 人生觀에 影響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젊은 異次頓이 義氣와 忠誠으로써, 그리고 銳利한 時代感覺의 判斷으로써, 佛法이 現世利益 國家興盛의 正法임을 믿고 殉敎한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感受性이 銳敏하고 義氣心이 強한 少年時期에 當時 貴族 知識層과 社會에 큰 影響력을 가지고 感化되던 風潮인 佛敎를 斯多舍이 外面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事實에 있어서 斯多舍이 信佛者가 아니었더라도 佛敎의 影響을 입었던 것만은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보게 될 花郎의 思想的 根柢를 봄으로써 이것이 立證되리라 믿는다.

## (2) 百高座講會와 八關齋會思想

高句麗에서 온 惠亮法師가 國統이 되어 비로소 始作했다는 百高座講會는 仁王般若經에 의한 護國의인 百高座法會이며, 八關會는 八關齋經에 의한 行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法會가 이 때부터 行해졌다는 것에서 仁王經과 八關齋經이 信解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當時에 비롯되었던 百高座講法會와 八關會의 思想을 알기 위하여 各各 所依의 經典을 大綱 考察함으로써 當時의 佛敎思想이 究明되리라 생각된다.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2卷(姚秦 三藏 鳩摩羅什譯)

百高座法會의 所依經인 仁王經에는 二譯<sup>25)</sup>이 있어서 이 經 外에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2卷(唐 大興善寺 三藏沙門 不空譯)이 있다. 그러나 이 不空譯은 唐의 代宗 永泰 元年(765)에 翻譯되었으므로 新譯 또는 仁王經新本이라 하는데, 眞興王代보다 훨씬 後代에 속하므로 여기에서는 論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羅什譯의 舊譯本(舊本)이 當時 百座講會의 典據가 된다. 眞興王代에 信奉되고 百高座法會의 所依가 된 이 經은

24) 漢土最初の 翻譯이라고 하는 '四十二章經'을 비롯하여 諸經論에서 많이 보게 된다. 일일이 枚舉 않음.

25) 大正藏經 第8卷 pp.825~834(舊譯), pp. 834~844(新譯).

高麗藏經 第5卷 pp.1021~1033

姚秦의 弘始 3年(401)에 鳩摩羅什이 譯하였다.

이 經은 序品第一, 觀空品第二, 菩薩教化品第三, 二諦品第四, 護國品第五, 散華品第六, 受持品第七, 囑累品第八의 全 八品으로 이루어져 있다.

序品第一에, 佛이 王舍城 耆闍崛山中에서 大比丘衆 八百萬億과 八百萬億의 大仙綠覺, 九百萬億의 菩薩, 千萬億의 五戒의 賢者<sup>26)</sup> 그리고 十六大國王과 五道の 一切衆生과 함께 계시면서 大空三昧에 들어 大光明을 놓아 寶華를 내는 등의 瑞相을 나타는 것으로 經은 始作되고 있다.

觀空品第二<sup>27)</sup>에서, 佛은 舍衛國 波斯匿王의 問法에 그와 아울러 十六大國王에게, 諸菩薩의 佛果를 修護하는 因緣과 十地의 行을 修護하는 因緣을 說하고, 般若波羅蜜을 修護함은 薩婆若와 十力和 十八不共法과 五眼·五分法身·四無量心 그리고 一切功德果를 修護함이 된다고 說하고,

菩薩教化品第三에서, 佛은 十地의 行을 修護하는 菩薩은 어떠한 行을 行하며, 어떠한 行과 相으로써 衆生을 化할 것인가에 대해서 說하고,

二諦品第四에서, 佛은 第一義諦와 世諦, 그리고 一義 二義에 대하여, 菩薩은 第一義中에서 항상 二諦를 照하고 衆生을 化한다. 佛과 衆生은 하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 菩薩이 아직 成佛 안됐을 때는 菩提로써 煩惱로 하고, 菩薩의 成佛에는 煩惱로써 菩提로 한다. 第一義에서는 不二, 諸佛如來 乃至 一切法은 如로써, 一切法의 觀門은 一도 아니며 二도 아니다. 一切法은 亦有相도 非無相도 아니라고 說하였다.(以上 第二에서 第四品까지는 內護를 說한다.)

護國品第五에서, 佛은 大王들에게 바르게 護國土하는 法用을 說하였으니, 國王은 마땅히 般若波羅蜜을 受持할 것이며 國土가 어지러워져서 破壤되고 劫燒되며 賊이 쳐들어와서 國家를 破滅하려고 할 때, 百의 佛像·百의 菩薩像·百의 羅漢像을 모시고 百法師를 請하여 百의 師子吼의 高座에서 이 經을 說하게 하고, 그 앞에 百의 燈·百의 和香·百種의 色花로써 三寶를 供養하며, 三衣什物로 法師를 供養하되 小飯 中食도 때를 맞추어 하며, 一日에 두 번 經을 讀誦하여, 百의 比丘衆·四大衆·七衆을 請하여 듣게 하면 國土中の 百部鬼神은 즐겨하고 國家를 守護하게 된다. 國土가 亂할 때는 먼저 鬼神이 亂하니 만약 火·水·風難의 一切諸難이 있으면, 이 經을 講讀할 것이다. 이는 다만 나라를 護할 뿐 아니라 역시 福을 護하게 되고, 또한 衆難을 護한다. 옛날 釋提桓因이 怨敵 頂生王을 물리치고, 普明王이 天羅國 班足太子의 殘忍을 悔悟시켜 出家하게 한 것도 모

26)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新譯)에는 “大比丘衆千八百人 無量無數菩薩 無量優婆塞衆 優婆夷衆……”으로 되어 있다.

27) 八品中 序品을 除外한 內題에는 “仁王般若波羅蜜護國經 觀空品第二” 등으로 되어 있어서 經名에 護國의 二字가 添加되어 있다.

두 이 法用에 의하였다고 說하였다.

散花品第六, 十六大國王이 佛의 說法을 듣고 歡喜無量하여 散한 百萬億의 華가 虛空中에서 一座로 변하니 十方諸佛은 함께 거기에 앉아 般若波羅蜜을 說하였다. 이 때 佛은 大王들에게 般若波羅蜜은 諸佛과 諸菩薩의 母이며 神通의 生處이며 三世의 利益이니 諦聽하여 善思念하고 如法히 修行할 것이라고 說하였다.

受持品第七, 佛의 滅度後 法이 滅盡하러 할 때 諸國王은 이 般若波羅蜜을 受持하여 크게 佛事를 위할 것이며, 國土中에 七難이 있더라도 般若波羅蜜을 講讀하면 七難이 即滅하여 七福이 生하고 安樂歡喜할 것이며, 般若波羅蜜은 진실로 諸佛菩薩 一切衆生의 心識의 根本이며 一切國王의 父母이므로 만약 未來世에 三寶를 受持하는 國王이 있으면 佛은 金剛吼菩薩 등의 五大力菩薩을 보내어 그 나라를 守護하고 國中에 大利益을 짓게 할 것이라고 說하였다. (以上 五品에서 七品까지는 外護를 說한다)

囑累品第八, 佛은 이 經과 三寶를 諸國王과 四부의 弟子에게 간곡히 附囑하였다. 이 때 大衆은 佛所說의 護佛果와 護國土의 因緣 등을 듣고 歡喜無量하여 佛에 作禮하고 般若波羅蜜을 受持하였다. 以上이 그 概要다.

이 仁王經은 法華經·金光明經과 더불어 護國三部經이라 하지만, 어느 經보다도 가장 積極的으로 護國法을 說한 經이며, 護國에 대한 佛說로서는 가장 重要한 中心的인 經이다.

佛陀는 이 經에서 護國法으로 般若波羅蜜의 聞解護持에 의한 內護 外護의 功德을 說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觀空品과 菩薩教化品과 二諦品에서 차례로 菩薩의 護佛果와 護十地行을 說하여 佛法의 奧義와 그 護持의 功德을 詳說하고 나서, 護國하는 法을 說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護法 곧 佛法의 信解와 奉持로써 護國하게 된다는 思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護國品에서 說한 護國의 法用인 百의 佛像·菩薩像·羅漢像과 百의 燈火·和香·色花 등으로써 三寶를 莊嚴供養하고, 百의 師子吼의 高座에 百法師을 請坐하여 이 經을 講誦한다는 것도 결국은 護法奉佛하는 佛法의 한 儀式이라고 볼 수 있다.

惠亮에 의하여 비롯된 眞興王時의 百座講會도 이와 같이 佛說에 의하여 般若波羅蜜을 信解受持하고, 이 經을 講說 讀誦함으로써 國家의 安寧과 諸難消穢을 위하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新羅의 百高座法會는 모든 災厄과 禍難을 除去한 福喜充滿의 平穩安樂한 福祉國家를 形成하려는 新羅人의 熱烈한 現世利益의 思想을 充足시켜 주는 護國佛敎思想이었던 것이다.

佛說八關齋經<sup>28)</sup> (宋居士沮渠京聲譯)

28) 大正藏經 第1卷 阿含部 上 p.913

이 經은 “中阿含經 哺利多品 第三”의 持齋經<sup>29)</sup>과 그리고 同經의 異譯本인 佛說齋經<sup>30)</sup>과 優婆夷墮舍迦經<sup>31)</sup>과 同義의 經이다. 宋의 孝武帝 孝建 2年(455)에서 大明 8年(464) 間에 居士 沮渠京聲에 의하여 翻譯된 것으로 짧은 小本經이다.

聞如是로 始作하여, 佛이 舍衛城 祇樹給孤獨園에 在할 時 諸比丘에게 告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內容의 大要는

① 阿羅漢처럼 殺生을 하지 않고, 또한 남에게 殺生을 하게 하지도 않으며, 怨恨의 마음이 없이 항상 慚愧한 생각을 품고 慈心으로 一切衆生을 憐愍하며,

②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에게도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고, 항상 惠施할 생각을 하고 한가로운 居處를 즐기며,

③ 不淨한 姪妓行을 不習하고 항상 梵行을 닦아 清淨無穢하게 하며,

④ 妄語를 하지 말고, 남에게도 妄語를 하게 하지 않으며,

⑤ 飲酒하지 않고, 남에게도 飲酒하게 하지 않으며,

⑥ 犯齋하지 않고, 또한 남에게도 犯齋하게 하지 않으며, 때를 따라 食하고,

⑦ 高廣의 床에 앉지 않고, 남에게도 앉지 않게 하며,

⑧ 歌舞戲樂을 不習하고, 또 紋飾과 香熏塗身을 不著하는 것 등의 聖八關齋를 修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聖八關齋를 修行하면 그 功德이 限量없고 받는 福과 그 福報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八關齋 修行의 法會가 眞興王 때 惠亮國統에 의해 始作되었다는 것인데, 眞興王 33年 10月에는 戰死士卒를 위하여 八關會를 베풀었다고 있다. 말하자면 戰死者를 위한 慰靈祭를 지낸 것인데 이와같이 慰靈祭를 지내면서 八關法을 修行한 것이 된다. 그러나 七日만에 罷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도 慰靈祭 아닌 八關齋로써 慰靈을 한 것 같다.

八關齋는 不殺生·不盜竊·不習不淨·不妄語·不飲酒·不犯齋·不於高好床坐·不習歌舞遊戲 亦不著紋飾香熏塗身으로서, 이것은 결국 倫理道德的인 行儀에 不過한 것 같이 보이나, 이 道德規範은 단순한 道德問題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다. 惡行을 짓지 않고 善行을 닦으며, 國家社會의 安寧秩序를 위하고, 懶怠와 放逸과 浪費의 生活을 하지 않고 奢侈를 하지 않는 勤儉으로 當時 國民들의 生活을 바로잡고 國民道德을 樹立하여<sup>32)</sup> 國家思想을 純化시키는 데 큰 意義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思想이기 때문에 戰死者를 慰靈하는 國家의 行事に 이 八關法을 修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無窮無盡한 功德과 福報가 있다고 하는 것은 國家를 新興시키려는 重要한 時

29) 大正藏經 第1卷 阿含部上 pp.770~772

30) " p.910

31) " p.912

32) 趙明基博士 著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p.31

期에 있는 當時에 있어서, 國民들로 하여금 道德적으로 淨化시키고 生活을 勤儉하게 하여 올바른 生活을 習行케 하고, 國民精神과 社會思想을 團合 醇化시킴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國家的 個人的 利益이 따르게 된다는 것일 것이다. 이 限量없는 福과 功德은 결국 國家를 利益되게 하고 國民生活을 純化시키는 國家的 意義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善德王 때에 있었던 또 하나의 八關會 記錄에서도 볼 수 있다. 즉 慈藏이 入唐 하였을 때, 太和池邊에서 만난 神人에게서 들은 말 가운데에 “本國으로 돌아가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우면 隣國이 降伏하고 九韓이 來貢하며 王祚가 永安할 것이다. 塔을 세우고 나서 八關會를 設하여 罪人을 赦하면 外賊이 能히 侵害치 못한다”는 것이 있다.<sup>33)</sup> 여기에 의하여 보면, 護國 國防塔인 九層塔을 세우고 나서 八關會를 設했다는 것에서 護國的인 意義를 지닌 行事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의 것은 慰靈的인 性格을 지녔는데, 이번 것은 造塔의 落成式的인 性格을 띄고 있는 八關會라 보겠다. 어쨌든 이 護國的 落成式的 八關會에는 罪人을 赦하였다는 데에 特色이 있다. 惡을 버리고 善을 닦아 奢侈와 放逸을 떠난 勤勉과 儉素 그리고 節制의 生活을 習修하는 法會를 設하면서 罪人을 赦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八關會는 앞에서 仁王護國經의 內容에서 본 것처럼, 眞法을 了解護持함으로써 護國 護民한다는 思想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八關의 聖齋에 의하여 正法을 護持함으로써 國民思想과 生活을 善導하고, 戰死者의 慰靈과 大塔의 落成에 罪人을 赦하며, 國家的인 儀式行事로써 國民精神을 醇化刷新하여 統合 團結하고 外國의 侵入을 막아 護國하였던 것이라고 보겠다. 以後 八關會는 多少 그 儀式과 節次가 變遷한 것 같다. 특히 高麗에 와서 一代를 통하여 八關會는 盛行하였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찍 安啓賢教授가 詳論한 바 있다.<sup>34)</sup>

## 2. 眞興王의 佛教思想

現存한 史料에서 眞興王의 思想 특히 佛教思想을 直接的으로 傳하는 文獻은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王의 言行錄도 名實相符한 傳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眞興王이 幼년에 即位한 후 法興王의 뜻을 慕하여 一心奉佛하고 晩년에 沙門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王의 信佛을 잘 알 수는 있으나 그 信佛의 思想內容이 어떠한 것이었던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기 힘들다.

그러나 王의 思想을 보여 주는 資料가 全無한 것도 아니다. 앞에서 본 當時의 佛教思想은 어디까지나 王의 治世下에 있었던 思想的인 事象을 몇 가지 考察해 본 데 지나지

33) 遺事 卷三 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

34) 安啓賢 ‘八關會攷’(東國史學 第4輯 pp.31~54)

않는다. 그보다 더 直接的인 王의 思想을 보여 주는 資料가 있다. 그러한 資料들을 통해서 王의 佛敎思想 나아가서는 政治思想과 國家觀을 考察하고자 한다.

(1) 國仙·花郎의 思想根柢

三國遺事<sup>35)</sup>에 보면 眞興王이 처음 原花를 奉爲한 理由와, 風月道를 일으켜서 國仙과 花郎을 始奉하게 된 事緣이 있다.

그 內容의 大綱을 보면,

第24代 眞興王은 天性이 風味하고 多尙神仙하여 人家의 娘子中에서 美艷한 者를 擇하여 原花로 捧렸는데, 要是 聚徒選士하고 孝悌忠信으로써 敎之하려 함이었으니 역시 理國의 大要였다. 이리하여 南毛와 姣貞 兩娘을 擇하여 聚徒 3·4百人하였으나 결국 姣貞의 嫉妬로 南毛가 殺害 당하는 悲劇을 남고 原花는 廢止되었다. 그러다가 累年에 王은 다시 생각하되 邦國을 興하게 하려면 먼저 風月道를 일으켜야겠다 하여, 다시 畚耨 내려 良家의 男子中에서 德行이 있는 者를 選하여 花郎으로 고치고, 薛原郎을 始奉하여 國仙으로 삼았다. 이것이 花郎과 國仙의 始이라 하였다.

여기에 의하여 우리는 王이 理國의 大要로써 原花를 奉했고, 또 欲興邦國을 念하여서 風月道를 일으키려 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花郎과 國仙의 制는 비로소 眞興王이 생각해 내고 王이 始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에서는 그 創設者를 모호하게 하여 王이라고 明示해 있지 않다.<sup>36)</sup> 이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學者들이 그 創設者를 眞興王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sup>37)</sup> 그러나 우리는 文獻에 의하여 歷史의 事實을 研究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본 것처럼 그토록 惝惝히 明示된 史料의 記錄을 無視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風月道를 創案하고 創設한 者는 王 自身이었다는 記錄에 의하여 花郎·國仙의 內面思想을 考察함으로써 王의 思想을 밝고자 한다.

前掲의 “奉爲原花”와 “改爲花郎하여 始奉國仙했다”는 事實에서 우리는 어떠한 理由로 風月道를 일으켰으며, 그 制度를 創始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史記의 記錄과 아울러 좀 더 具體的으로 보려 한다. 史記의 眞興王 37年條에는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羣遊 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 遂簡美女二人……”이라 있고, 二女의 相妬로 罷散된 뒤 다시 花郎을 받들게 된 事實에는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라 하

35) 遺事 卷三 塔像第四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36) 史記 卷四 眞興王 37年에는 遺事의 眞興王에 該當되는 곳에 “初君出…”이라 했고, 또 遺事의 “王又念”에 該當하는 곳에는 “其後”라고만 있어 指示性이 모호하다. 또 同史記의 ‘列傳第七 金歛運傳’ 다음에 “論曰”하여 撰者의 花郎觀이라고 할 수 있는 글에는 “羅人”이라고 있다.

37)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를 비롯하여 國內외의 많은 學者가 거의 花郎의 源流를 眞興王 以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創案이나 創制者를 特定人으로 明示하고 있지 않다. 특히 花郎制가 眞興王代에 創設된 것이라고 明言하고 있는 孫晉泰 ‘朝鮮民族史概論’에서도 “花郎制度의 創案者로서 當時의 人物 名將 異斯夫 居柒夫 등 一時 攝政한 母后 金氏 등이 있었다는데 누구의 創案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朝廷의 母后 攝政과 이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試初期의 花郎(原花)은 眞興王母后의 發案이 아니었던 가도 想像된다.”(同書 p.127)고 하였다.

여 있다. 遺事에서는 “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要聚徒選士 教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라 있어 美艷한 娘子를 擇하여 原花로 捧한 理由는 한 마디로 말해서, 무리를 모아 훌륭한 國民이 되게 하여 國家有用의 人材를 選拔하자는 것으로 理國의 大要에 의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原花가 失敗한 뒤 몇 년이 지나서 眞興王은 다시 생각하기를 ‘國家를 興하게 하려면 먼저 風月道를 일으켜야 된다’고 했다. 이로써 보아 風月道는 國家를 興하게 하기 위하여 일으킨 것이니, 많은 무리들을 모아 孝悌忠信(훌륭한 國民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서 靑少年들로 하여금 國家를 隆興시킬 알찬 일군이 되게 하는데 目的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史記에서는 國家有用의 人物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무리를 모아 끼리끼리 베지어 사귀게 하여 그 行義를 보아 두었다가 뒷날 適材適所에 쓰게 하려고 美女二人을 簡擇하여 粧飾하고 聚徒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失敗되자 그 뒤 다시 美貌의 男子를 取하여 花郎이라 이름하여 奉했다는 것이다. 이대로 본다면 史記에서는 美女를 簡擇한 것이나 花郎을 奉한 것이 단순히 사람을 알아 보기 위해 즉 有用한 人材를 擧用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모으기 위한 手段인 것 같은 印象을 줄 뿐이다. 그러나 그 뜻을 깊이 따져 본다면 결국 遺事에서와 같이 國家隆興의 한 方法으로 人材를 養成하여 有能한 人物을 輩出키 위한 修養과 教育을 目的으로 한 것임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보아 史記보다는 遺事의 記錄이 훨씬 具體性이 있고 詳細하다고 할 수 있다. 事實 花郎 始奉에 관한 史料로 볼 때, 遺事의 쪽이 史記편보다 더 그 面貌를 알게 하는데 充實한 것은 틀림없다. 이 밖에도 花郎關係 研究에는 遺事에서 貴重한 資料를 거의 大部分 傳해 주고 있기 때문에 史記에도 重要한 參考가 많지만 遺事를 따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遺事의 資料를 主로 하고, 史記의 記錄은 參考로 다룰 생각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것에 의한다면, 眞興王은 國家를 興하게 하려고 有能한 人材를 養成하기 위하여 風月道를 일으켰는데, 그 方法으로서 예쁜 娘子를 選擇하여 主人公으로 받들고 이를 中心해서 젊은이들을 모아 서로 道德을 닦고 人格을 研磨하여 훌륭한 國民의 資格을 갖추게 하는 修養團體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女子들의 嫉妬로 이것이 失敗로 돌아가자 廢止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國家를 興하게 하는데는 人材 養成 그리고 靑少年 修養이 絕對 必要함을 切感하고, 다시 良家의 男子로 德行이 있는 者를 選擇하여 花郎으로 삼아 비로소 薛原郎을 國仙으로 받들었으니 이것이 花郎과 國仙의 始作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國仙은 어떠한 것이며, 花郎 또한 무슨 意義를 지닌 것인가를 봄으로써 風月道 즉 國仙·花郎의 思想과 그 內容을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먼저 國仙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어떤 學者는 國仙의 存在를 否認하여 國仙은 高麗의이며 追稱의 稱號로서 新羅 花郎이 後世 高麗人에 의하여 불리워진 것이라고도 한

다.<sup>38)</sup> 이는 國仙의 關係史實을 잘못 考察한 데서 나온 所致이다. 우리는 文獻을 통해서 同代에 數名의 花郎이 있었다<sup>39)</sup>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 摘擧한 遺事의 “改爲 花郎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라는 史實이 보여 주는 “原花를 廢하고 다시 花郎으로 고쳤다”는 것에서 原花도 二人이었으니까 그것을 고친 花郎도 역시 二人 以上이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며, 또 그 以下の 文이 “그 花郎中에서 薛原郎을 받들어 國仙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것이 花郎과 國仙의 첫 시작이다”는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 國仙은 花郎中의 上首花郎 즉 最高花郎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國仙은 國家의 權威를 가진 全 風月道の 最高統率者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郎徒의 우두머리인 花郎중에서도 가장 上首이며, 國王이 奉爲하는 風月道の 最高統率者를 國仙이라 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서 그 名稱을 國仙이라 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字義대로 한다면 ‘나라의 神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國仙은 國家의 神仙이란 뜻이 아니고 ‘나라의 彌勒’이란 뜻이며, 國家의 ‘살아 있는 彌勒佛’, ‘아기 미륵부처’라는 것이었다. 이에 관한 考證과 解明은 이미 數處의 拙稿<sup>40)</sup>에서 發表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詳說을 避하기로 한다.

다음에 花郎을 보자. 花郎이란 名稱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다.

文獻에서 볼 수 있는 花郎은

“美貌의 男子를 取하여 粧飾하고 花郎이라 이름했다.”<sup>41)</sup>

“貴人의 子弟중에 美한 者를 擇하여 傳粉粧飾하고 이름하여 花郎이라 했다.”<sup>42)</sup>

“良家의 男子에 德行이 있는 者를 選하여 花郎으로 삼았다.”<sup>43)</sup>

“風姿가 美한 男子를 擇하여 珠翠로 飾하여 花郎이라 하였다.”<sup>44)</sup>

등으로서 이 밖에는 花郎을 說明한 記錄을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花郎이란 名稱이 무엇을 뜻한 것인지, 왜 花郎이라 했으며 그 思想的 根柢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밝혀 주는 明文은 통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美貌의 男子를 粧飾하고 花郎이라 했다는데 왜 傳粉粧飾 또는 珠翠로 粧飾했는지 그 理由도 알 수 없다. 史料에는 全然 그에 대한 關係 記錄이 없으므로 그 內面을 알기 힘들다. 花郎의 前身인 原花가 美艷한 娘子였으니까 花郎도 原花를 본떠서 곱게 단장하여 꾸민 것이라고 일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原花

38) 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p.250

39) 遺事 卷五 感通第七 融天師擘星歌 眞平王代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 第七實同郎等……”

同書 卷二 紀異第二 第48景文大王 “國仙 遊元郎 譽昕郎 桂元叔宗郎等……” 그리고 源花도 二人이었다.

40) ‘彌勒仙花攷’(佛敎學報 第3·4合輯 pp.142~148)

‘花郎道創設에 對한 小考’(東國思想 第1輯 pp.24~34) 등

41) 史記 卷四 眞興王 37年

42) 同上 引用의 ‘新羅國記’

43) 遺事 卷三 塔像第四 彌勒仙花

44) 李仁老 ‘破閑集’ 卷下

“鷄林舊俗 擇男子美風姿者 以珠翠飾之 名曰花郎……”

가 女子였기 때문에 失敗로 돌아가서 廢止하고, 數年後에 苦心 끝에 다시 일으킨 花郎을 하필이면 전번에 失敗한 原花를 더구나 嫉妬의 化身처럼 밋게 느껴질 娘子를 본뜨고 흉내내어 꾸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常識에 벗어난 일이라 하겠다.

花郎을 글자 그대로 풀어 본다면, 꽃처럼 곱게 꾸미고 단장한 사내(郎)라고 하겠지만 어찌서 꽃처럼 곱게 꾸밈을까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理由가 있을 것이다. 花郎이란 名稱의 意義가 어떠한 간에 우리는 앞에서 본 것에서 花郎은 良家の 子弟로 德行이 있는 美貌의 者로써 粉을 발라 단장하고 珠翠로 粧飾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國仙이 나라의 彌勒이라는 考證을 한 것에 미루어 花郎이 傳粉粧飾하고 곱게 꾸밈다는 것도 역시 彌勒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면 花郎을 곱게 꾸민 것과 彌勒과는 어떠한 相關이 있는 것일까?

經에 보면, 彌勒佛이 下生하게 되는 그 國土의 人民은 모두 얼굴빛이 桃花色 같고<sup>45)</sup>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은 諸根이 恬靜하고 面貌가 端正하며 威相이 具足하여 하늘의 童子와 같으며, 下生한 彌勒은 身相이 具足하고 端正無比하며 成就相好하여 一一相이 八萬四千好로 以自莊嚴하였다<sup>46)</sup>고 있다.

花郎이 美貌라는 것과 곱게 단장하고 꾸밈다는 것이, 彌勒이 下生하는 國土의 人民과 그리고 彌勒의 相好具足과 莊嚴을 비추어 볼 때, 더구나 國仙이 現實的인 國家의 彌勒으로 國王에게 奉爲되어 國民의 推仰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事實을 생각할 때, 깊은 關係가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眞平王 때에 花郎 金庚信의 徒를 龍華香徒라 했다<sup>47)</sup>는 것도 이것을 證明해 주고 있다 하겠다. 말할 것도 없이 龍華香徒란 彌勒信仰者란 뜻이다. 彌勒이 下生하여 出家修道할 때 龍華樹下에서 成佛하고 이 龍華道場에서 三會에 걸쳐 說法하여 釋迦佛 未度の 有緣衆生을 모두 濟度한다는 것이다<sup>48)</sup>. 그러므로 龍華會上, 龍華法會, 龍華世界라 하여 彌勒佛의 法化를 指稱하고 있다. 이리하여 龍華는 彌勒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香徒는 禮香之徒 또는 禮佛信者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龍華香徒는 龍華道場의 彌勒佛을 禮香하고 받드는 모임이요 무리라는 뜻으로 彌勒信仰의 徒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花郎에 대해서도 역시 앞의 國仙과 마찬가지로 이미 拙論으로 言及한 바가 있다.<sup>49)</sup>

그리고 彌勒下生時의 國土는 雨順風調하여 災難이 없고 穀物은 豐盛하여 집집마다 門을 닫지 않는 理想國土인 蟻佉轉輪聖王의 治世로서, 彌勒의 慈心訓導로 人民은 모두 溫順하여 語言이 恭遜하고 和睦相愛하여 諍訟과 鬪爭이 없다<sup>50)</sup>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

45) 佛說彌勒來時經(高麗藏經 第11卷 pp.207~208)

46) 佛說彌勒大成佛經(同上 pp.119~206)

47) 史記 卷四一 列傳第一 金庚信上

48) 佛說彌勒大成佛經, 彌勒來時經, 彌勒下生經, 彌勒下生成佛經兩本(高麗藏經 第11卷 pp.199~220)

49) 註④ 및 '新羅 白月山二聖說話의 研究'(曉城 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pp.55~59)

50) 註④

로 보아 國仙과 花郎은, 理國의 大要로서 眞興王이 欲興邦國의 念으로<sup>51)</sup> 彌勒의 慈心訓導를 應하여 國家有爲의 人材를 養成하며, 轉輪聖王의 治世와 같은 四方平治 正法治化의 實現을 위하여 恭敬和順하고 言語謙遜한 國民으로 和合團結하여 理想國家를 建設하기 위한 結社 즉 修養團體로서 眞興王이 創案 設置한 王化之方便<sup>52)</sup>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眞興王이 이러한 意圖와 思想의 根柢에 의하여 國仙·花郎의 制를 일으켰다는 것에서, 王의 興國利民思想을 엿볼 수 있고 그 思想의 根源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즉 國仙道는 彌勒思想에 基盤을 두고 成立하였으며, 아울러 王의 佛敎思想은 彌勒思想이 크게 支配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彌勒思想에 의하여 王은 國家의 理想을 實現하려 하였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初期新羅佛敎의 기틀을 確立하고 新羅佛敎의 性格을 定했다고 할 眞興王의 佛敎思想이 어떠한 것이었던가에 대한 一面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轉輪聖王思想과 巡狩碑文에서 볼 수 있는 思想

眞興王에게는 몇 子女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날 우리는 두 사람의 王子가 있었다는 것을 文獻에서 보게 된다. 한 사람은 銅輪太子이고 또 하나는 金輪王子이다.<sup>53)</sup> 여기에서 問題는 銅輪과 金輪이란 그 이름이다. 물론 이 銅輪·金輪의 이름은 王子들 自身이 지은 것은 아닐 것이다. 子女의 이름을 그 父母가 짓는 것이 常例라면, 眞興王도 자기의 王子名을 스스로 지었을 것이다. 보통 子女의 이름을 짓는 것에 별다른 뜻을 두지 않고 예사롭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어떤 父母이건 子女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들을 찾아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 그 이름에는 자그만치 그 父母(또는 作者)의 思想과 願望 期待 같은 것이 作用하고 있다. 卑近한 例로 ‘개똥’이라는 이름이 아무렇게나 지어 부른 것 같지만 거기에도 그 나름의 뜻이 있고 願望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眞興王의 王子名 銅輪과 金輪도 平凡한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意義와 願望과 期待와 理由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遠大한 思想이 內包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銅輪·金輪은 轉輪聖王을 뜻한 것이며, 또한 佛敎思想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이다.

諸經論에서言及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 綜合해 보면, 轉輪聖王(Cakra-Vartī-rājan)은

51) 遺事 彌勒仙花條의 “原花始奉”과 “花郎改爲”의 事實에서.

52) 海東高僧事傳 釋法雲에서  
“……花郎 國人皆尊事之 此蓋王化之方便也”

53) 史記의 眞興王 27年條에 “立王子銅輪爲王太子” 33年 3월에 “王太子銅輪卒” 眞平王條 初頭에 “……眞興王太子 銅輪之子” 眞智王條에 “諱舍輪 或云 金輪 眞興王 次子” 그리고 遺事의 王曆第一 第25眞智王에 “名舍輪 一作 金輪 父 眞興” 第26眞平王에서 “名白淨 父 銅輪”, 同書 紀異第二 桃花女 鼻荆郎에서 “第二十五 舍輪王……”

王中の 大帝王으로서, 金輪寶·象寶·馬寶·珠寶·玉女寶·居士寶·主兵寶의 七寶를 成就하고, 長壽不夭·身強無患·顏貌端正·寶藏盈溢의 四神德(功德)을 具足하여, 千福으로 輻輳이 圓滿하고 光色이 具足해서 大威力이 있는 金輪의 旋轉으로써 武力을 쓰지 않고 四天下를 차례로 調伏하여 統一하고, 正法으로써 世上을 治化한다는 것이다.<sup>54)</sup> 즉 輪寶를 轉하여 天下를 統領하고 正法으로 治化하기 때문에 轉輪聖王이라 하는 것이다. 이 輪寶는 보통 金輪寶로 알려져 있지만 實은 金輪 外에도 銀輪·銅輪·鐵輪이 있어서, 金輪을 所有한 王은 金輪王, 銀輪을 所有한 王은 銀輪王, 銅輪을 所有하면 銅輪王, 鐵輪所有는 鐵輪王이라 하여 四種의 轉輪聖王이 있다는 것이다. 金輪王은 四洲(四天下)를 統治하고, 銀輪王은 三洲(三天下), 銅輪王은 二洲(二天下), 鐵輪王은 一洲(一天下)의 王이 되어 各各 統治하는데, 그 威勢에도 金輪王은 一切小王이 모두 스스로 望風順化하여 와서 歸伏하고, 銀輪王은 먼저 遣使함으로써 諸小國王이 從化하며, 銅輪王은 軍師를 일으켜서 威勢를 보임으로써 諸小國王이 從化하고, 鐵輪王은 奮戈揮刀하여 直接 戰勝함으로써 他國이 從化한다는 것이다.<sup>55)</sup>

眞與王이 王子名을 銅輪 또는 金輪이라 한 것은 이러한 銅輪王과 金輪王을 象徴하여 取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銅輪은 銅轉輪聖王, 金輪은 金轉輪聖王을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붙여 客說이지만 言及할 수 있는 것은, 太子가 銅輪이고 次子가 金輪이라고 한 것은 그 順序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史記에 보면 金輪인 眞智王이 眞與王의 次子로 明記해 있고, 銅輪이 太子가 되었다가 일찍 死한 것이 明記되어 있다. 그러나 王의 27년에 “立王子銅輪爲王太子”란 것에서 우리는 王子 銅輪을 세워 王太子로 삼았다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銅輪을 長子라고 解釋할 수는 없다고 본다. 長子를 太子로 삼

- 54) 佛說長阿含經 卷第六 第二分 轉輪聖王修行經(大正藏經 第1卷 pp.39~42)  
 同經 卷第十八 第四分 世記經 轉輪聖王品(同上 pp.119~121)  
 中阿含經 卷第十一 王相應品 四洲經(同上 pp.494~496)  
 同經 卷第十五 王相應品 轉輪王經(同上 pp.520~525)  
 佛說輪王七寶經(同上 pp.821~822)  
 佛說頂生王故事經( // pp.822~824)  
 雜阿含經卷第二十七 721經과 722經(大正藏經 第2卷 pp.194)  
 增一阿含經卷第四 十不善品第四八 第三經(同上 pp.787~789)  
 大薩遮尼乾子所說經 卷第三 王論品第五之一(大正藏經 第9卷 p.329~332)  
 佛說彌勒大成佛經 및 下生經(高麗藏經 第11卷 pp.199~220)  
 瑜伽師地論 卷第四(高麗藏經 第15卷 p.559)  
 大智度論 卷第二五 釋初品中 四無畏義第四十(高麗藏經 第14卷 pp.625~633, 大正藏經 第25卷 pp.241~247)
- 55) 瑜伽師地論 卷第四 本地分中 有尋有伺等三地之一(高麗藏經 第15卷 p.559)  
 佛說衆許摩訶帝經 卷第一(大正藏經 第3卷 p.934)  
 阿毘達磨大思婆沙論 卷第三十(大正藏經 第27卷 p.156)  
 阿毘達磨俱舍論 卷第二十 分別世品(大正藏經 第29卷 p.64)  
 仁王般若波羅蜜經 菩薩教化品第三(大正藏經 第8卷 p.826)  
 菩薩瓔珞本業經 卷上 現聖學觀品(大正藏經 第28卷 pp.1012~1016)

는 것은 王家의 通例이기 때문에 太子 銅輪의 夭逝로 金輪王子가 王位를 繼承했으나 金輪을 次子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太子가 必然的으로 王의 長子라면 구태여 “立王子 銅輪爲王太子”라 했을까 하는 점과, 또 金輪王(眞智王)이 “政亂荒姪하여 國人이 廢하였다”는 遺事의 記錄<sup>56)</sup>으로 미루어 王子 金輪의 爲人이 健實하지 못하고 王者之度を 갖추지 못했던 人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金輪이 長子였지만 그 人品으로 보아 長子는 아니나 銅輪王子가 가장 王者之德을 갖추었으므로 立하여 王太子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推測도 可能하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長子 次子의 問題는 크게 相關없다고 보겠으며 만약 金輪이 그 이름의 順位대로 長王子였다면 銀輪王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太子 銅輪은 第三王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金輪과 銅輪의 名稱을 王子의 名에서 봄으로써 眞興王이 轉輪聖王에 대한 知識과 思想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王子의 名에서 轉輪王을 보여 주고 있다는 事實은 王의 思想을 아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花郎의 思想도 이 轉輪聖王思想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王의 國家觀이나 政治思想에 많이 反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轉輪聖王은 어떻게 그 國土 人民을 治化하며, 그 國土는 어떠한가를 봄으로써 그 思想이 어떤 것인가를 簡略하게 보기로 한다.

轉輪聖王은 오직 聖王의 正法을 勤行하여, 이 法에 의하여 立法하고 具法하며, 法을 恭敬 尊重 觀察하고 이 法을 首로 하여 正法을 守護하며, 마땅히 이 法으로써 諸姪女를 教誨하고 또 法으로써 諸王子와 大臣 群寮百官 그리고 諸人民을 教誡하고 護視하며, 沙門·婆羅門과 밑으로 禽獸이 이르기까지 모두 護視한다. 그리고 그 國土 안에 있는 沙門과 婆羅門으로서, 淸眞을 履行하고 功德을 具足하여 精進不懈하고 去離驕慢하며 忍辱과 仁愛로 閑獨自修하여 止息하고 涅槃에 이르러 衆生을 福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王은 반드시 때때로 찾아 가서 모든 修行에 있어서 어떤 것이 善하고 惡하며, 어떤 것을 犯하지 않으며, 何者를 可親하고 不可親하며, 何者를 可作하고 不可作하며, 또 施行을 어떻게 하면 길이 受樂하는가를 諮問하고 스스로 속으로 觀察하여 마땅히 行할 것은 곧 行하고 버릴 것은 곧 버리며, 나라 안의 孤兒와 老弱들에게 慈善을 베풀어 貧窮하고 困劣한 者를 도우며, 나라에 내려오는 舊法을 改易하지 않고 轉輪聖王의 法을 修行하여 奉行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金輪寶를 成就하여 四方天下를 平治하고, 가는 곳마다 歸伏順從하는 小國王들에게 正法으로 治化하여 偏枉이 없게 하고, 國內에 非法을 行하지 않도록 하며, 道로써 開化하여 民庶를 安慰한 후, 本國으로 歸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國土 人民의 安樂無患을 보기 위하여 國內을 巡行하며, 民物을 慈育함이 父母가 愛

56) 遺事 紀異第二 桃花女 鼻削郎

자에게 함과 같이 함에, 國民도 王을 子息이 父母를 尊仰하듯이 崇慕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轉輪聖王이 正法으로 閻浮提를 治化할 때는 그 土地가 平正하고 荊棘·坑坎·堆阜가 없으며, 蚊虻·蜂蝎·蛇虻等 惡蟲이 없으며, 石沙와 瓦礫은 自然히 沈沒하고 金銀寶玉이 地上에 들어나며, 四時가 和調하여 不寒不熱하며, 그 땅이 柔濡하여 塵穢가 없고 기름을 칠한 것처럼 淨潔해서 光澤이 나며, 淸淨한 샘물이 흘러서 마르지 않고 柔濡한 풀이 나서 冬夏에 常靑하며, 樹木이 繁茂하여 花果가 熾盛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聖王이 治世할 때 五穀이 豐登하고 人民이 熾盛하며, 財寶가 豐饒하여 匱乏한 바가 없으며, 聖王은 正法으로 治國하여 阿枉이 없고 十善行을 修하므로 諸人民도 역시 正見으로 十善行을 修한다는 것이다.<sup>57)</sup>

이러한 聖王의 修行과 治政 그리고 그 國土는 佛敎의 政治思想과 國家觀의 理想型인 것이다.

앞에서 花郎·國仙의 思想을 볼 때 國仙과 花郎의 思想 根柢가 彌勒思想에서 取한 것이라고 했다. 그 彌勒思想은 반드시 轉輪聖王思想과 隨伴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彌勒이 下生할 國土에는 蟻佉(Sankha)轉輪聖王이 七寶와 千子와 四種兵으로 武力을 쓰지 않고 天下를 調伏하고는 正法으로써 治化하기 때문에 人民은 서로 恭敬和順하고 言語謙遜하며 上下가 和睦하다는 것이며, 그 國土에는 盜賊이 없고 金銀寶貝가 地上에 깔려 있어도 아무도 가져 가지 않고, 地平廣沃하고 五穀이 豐登하여 人民이 熾盛하며 家家戶戶에 門을 닫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想國土가 이루어졌을 때 彌勒이 出世한다는 것이다.<sup>58)</sup>

여기서 言及할 機會가 있기 때문에 앞서의 國仙·花郎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國仙의 思想이 彌勒思想에서 나온 것은 물론, 轉輪聖王의 思想도 影響이 되어 있는 것이다. 轉輪聖王의 治世에 彌勒이 下生하여 成佛한다는 것임으로, 彌勒을 象徴하여 奉爲한 國仙의 制는 新羅에다가 轉輪聖王 治世의 理想國土를 實現시키려고 한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sup>59)</sup>이리하여 四方平治의 轉輪聖王思想에 의하여 當時의 高句麗·百濟를 平定하고 倭國 등 外敵을 調伏받으려는 眞興王의 大志를 實現하기 위하여 國仙·花郎制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 王 自身은 四方平治 正法實現의 理想國王인 轉輪聖王이며, 國仙은 新羅의 彌勒佛이었다는 것을 推理할 수 있다.

이와같이 國仙의 思想에서 이미 眞興王의 轉輪聖王思想을 보게 되는 우리는 또 그의 王子名을 金輪·銅輪이라 한 것에서 더욱 그 考證을 굳힐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眞興王의 轉輪聖王思想은 바로 그의 政治思想이며 國家觀이라고 할 수 있다.

57) 佛說長阿含經 卷第六 轉輪聖王修行經(大正藏經 第1卷 pp.39~42)

同經 卷第十八 轉輪聖王品(同上 pp.119~121)

58) 註④ ⑤ 및 長阿含卷六 轉輪聖王修行經, 增一阿含經 卷第四四 十不善品第四八 第3經

59) 拙稿 '彌勒仙花攷'(佛敎學報 第3,4合輯 p.146)

그것은 王의 政治思想과 國家觀을 보여 주고 있는 遺蹟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眞興王의 言行과 思想이 記錄된 文獻을 볼 수 있는 것은 王의 巡境碑의 銘文이라 할 것이다. 現存한 王의 巡狩四碑<sup>60)</sup> 가운데에서 磨雲嶺碑가 가장 泐字가 적고 거의 完全하게 全文의 內容을 傳해 주고 있다. 이것은 眞興王의 言行을 보여 주는 唯一의 現存記錄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그 本文을 그대로 옮기고, 그 內容의 解釋과 思想의 考察을 차례로 보고자 한다.

“夫純風不扇則世道乖眞玄化不敷則耶爲交競是以帝王建號莫不修己以安百姓然朕歷數當躬仰紹太祖之基纂承王位兢身自愼恐違乾道又蒙天恩開示運記冥感神祇應符合竿因斯四方託境廣獲民土隣國誓信和使交通府自惟忖撫育新古黎庶猶謂道化不周恩施未有於是歲次戊子秋八月巡狩管境訪採民心以欲勞賚如有忠信精誠才超察厲勇敵強戰爲國盡節有功之徒可加賞爵以章勳勞”(本文만을 抽出하였으므로 初頭の 年月日에 관한 題 및 以下の 引駕日, 그리고 隨薦者의 名單 등은 省略한다.)

이와 같은 碑文의 大意를 대략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純風이 불지 않으면 世道는 眞에서 어그러지고, 玄化가 배풀어지지 않으면 邪가 판을 치게 된다. 그러므로 帝王이 建號하면 먼저 自己를 修業하고 나서 百姓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朕은 太祖께서 닦으신 터를 물려 받아 王位에 오르고, 天道에 어김이 없도록 몸을 바로 잡아 스스로 愼重하였다. 또 天恩을 입고 運記가 열리어 神祇가 冥感하여 잘 應하여져서 이에 四方의 境界를 넓히고 民土를 廣獲함에, 隣國이 信和를 誓하여 使節이 交通되었다. 스스로 생각컨대 새로 歸化된 人民이나 옛 黎庶에게 道化가 두루 미치지 못하고 恩施가 없었던 것 같으므로, 이해 8월에 管境을 巡狩하여 民心을 訪採하고, 忠信精誠才超한 者를 위로하고 勇敵強戰하여 爲國盡節한 有功의 徒를 살피서 賞爵을 加하고 勳勞를 기리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簡潔하고 簡潔한 이 文章에서 眞興王의 思想과 人品을 엿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王의 思想과 政治觀을 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純風不扇則 世道乖眞 玄化不敷則 邪爲交競”에서 眞興王의 理想(國家)觀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眞正한 世道와 邪惡이 없는 國家가 되려면 純風이 造成되고 玄化가 배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純風이란 무엇이며 玄化는 또한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한다면 純風은 純粹한 風潮·至純한 風教·純淨한 風俗 또는 깨끗한 風習으로 볼 수 있다. 玄化도 玄妙한 道化·深玄한 教化 또는 玄奧한 法化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純粹한 그리고 清純한 風教 또는 風潮는 어떠한 것일까? 이것은 말할 것도

60) ‘寧寧碑’ ‘北漢山碑’ ‘磨雲嶺碑’ ‘黃草嶺碑’ (崔南善 編 新訂三國遺事 附錄 pp.9~15)

없이 世道가 眞正하여 國家가 富強 平安할 수 있는 길이며, 여러가지 氣風과 風習의 淨化를 뜻함일 것이다. 이 風敎의 淨化가 없으면 世上의 正道는 어그러진다. 風敎를 淨化하고 世道를 바르게 하는 根本源泉이 될 眞理와 玄妙의 敎化가 배풀어지지 않으면 邪惡이 다루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玄化는 道化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純風과 玄化로써 世道를 바르게 하고 邪惡을 없게 하려는 것이 眞興王의 理想이었고 政治目標임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王의 思想이 風月道를 創案하여 國仙·花郎의 制를 實施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風月道야말로 純風을 불게 하고 玄化를 배풀려는 眞興王의 眞意가 切實히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眞興王은 이와같이 純風·玄化의 理想을 實現하기 위하여 直接 國仙·花郎을 일으켜서 實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眞興王은 철저한 實踐의 王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是以帝王建號莫不修己以安百姓……兢身自慎恐違乾道”에서는 그의 王道思想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帝王이 治國에 있어서 修己하지 않고는 百姓을 便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眞興王은 스스로 太祖 以來로 물려 받은 王位에 오르고는 兢身自慎하여 恐違天道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兢身自慎은 修己이며, 恐違天道의 天道는 安百姓의 道·治國의 法道일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修己하고, 以安百姓했을까?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兢身自慎으로 修己하고, 純風扇起와 玄化設敷로써 遵守天道하여 以安百姓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眞興王의 이 思想은 修身 濟家 治國 平天下의 儒敎精神과 통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注意할 점은 純風·玄化라던지 또는 世道乘眞·邪爲交競이라는 語句 등과, 다음에서 보이는 道化니 恩施니 하는 文句와 그리고 王 自身の 巡狩한 內容 등이다. 물론 儒敎의인 治國에도 巡狩는 있고, 이와같은 言語文句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眞興王의 生涯와 그 業績 思想을 보아 왔다. 거기에 一貫되어 있는 一心奉佛者의 姿勢를 우리는 否定할 수 없다. 특히 그의 思想이 佛敎의 理想國家·政治觀인 轉輪聖王思想이 中心되어 있음을 보아 왔다. 그에 의하여 觀點을 그리로 돌려 보면 우리는 이것이 轉輪聖王思想과 密接함을 볼 수 있고, 그에 恰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諸經典에서 찾아보면 轉輪聖王은

“以正法治化하여 勿使偏枉하며 無令國內에 有非法行하여 身不殺生하고 教人不殺生·偷盜·邪淫·兩舌·惡口·妄言·綺語·貪取·嫉妬·邪見人케 한다.……以正治國하여 無有阿枉하고 修十善行한다.”<sup>61)</sup>

“勤行聖王正法하며 當依於法하고 立法具法하며 於法에 恭敬尊重觀察하여 以法爲首로 守護正法하며 又當以法으로 詢諸採女하고 又當以法으로 護視敎誡諸王子大臣群察百官及諸人民하며 沙門 婆羅門 下至禽獸皆當護視한다. 그리고 以意觀察하여 宜行則行하고 宜

61) 長阿含經 卷十八 轉輪聖王品

捨則捨하며 國有孤老면 當極給之하고 貧窮困劣有來取者면 慎勿違逆한다.”<sup>62)</sup>

“不以刀杖하고 以法教令으로 令得安樂한다.”<sup>63)</sup>

“眞法之王은 治化人民에 無有卒暴한다.”<sup>64)</sup>

“教化國人하고 善化國人하며 當如法化로 莫作非法하며 亦令國人으로 善化非法한다”<sup>65)</sup>

“依正法者는 以離非法貪瞋痴하고 使行於正法하여 化愚闇한다. 當依正法行化하여 莫依邪法하며 依平等心하여 莫依偏心하며 若邪法이 起하면 速除滅한다. 以道治國하여 護諸衆生한다. ……轉輪聖王出世時는 彼時衆生이 離諸不善惡貪法心하고 離顛倒貪心하고 離邪見心한다.”<sup>66)</sup>

“一切小王이 望風順化하며 ……(爾時 輪王이 便即勅令하여)汝等 諸王은 各於自境에 以理獎化하여 當以如法으로 勿以非法하며 又復 汝等은 於國於家에 勿行非法行하며 勿行不平等行하라.”<sup>67)</sup>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轉輪聖王은 正法으로써 修身하고 正法으로 治化하여 諸小國王과 國人·衆生을 正法으로 教誨 護視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諸非法을 行하지 않고 國內에 모든 邪法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眞興王의 純風이나 玄化도 正法을 뜻한 것이며 乖眞과 邪는 非法과 邪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非法과 邪法의 內容은 앞에서 보게 되는 殺生·偷盜·邪婬·兩舌·惡口·妄言·綺語·貪取·嫉妬·邪見·貪瞋痴·愚闇·顛倒心 등일 것이다. 그리고 國中에 七難 등 種種의 天地災難이 일어나게 되는 까닭을 묻는 波斯匿王에게 佛陀는 “一切人民이 父母에 不孝하고 師長과 沙門·婆羅門에 不敬하며, 國王과 大臣이 正法을 行하지 않는 이러한 諸惡으로 因由해서 그러한 難이 일어나게 된다.”<sup>68)</sup>고 한 것이 있다. 여기 의하여 보면 父母에 不孝하고 師長과 沙門·婆羅門에 不敬하고 國王·大臣이 正法을 不行하는 것을 諸惡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正法을 行하지 않으면 즉 惡을 지음으로 因해서 國中에 諸難災禍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眞興王이 純風으로 玄化를 베풀어서 邪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도 正法을 行함으로써 邪惡으로 因히 일어날 모든 災難을 막고자 함일 것이다. 이것은 또 眞法之王이 治化人民함에 無有卒暴으로 한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아 王自身의 兢身自愼한 修己도 轉輪王의 修行에서 볼 수 있

62) 長阿含經 卷六 轉輪聖王修行經

63) 中阿含經 卷十 四洲經

64) 佛說頂生王放事經

65) 雜阿含經 卷二七·722經

66) 大薩遮尼乾子所說經 卷第三 王論品第五之一(大正藏經 第9卷 p.332)

67) 瑜伽師地論 卷第四(高麗藏經 第15卷 p.559)

68) 仁王般若波羅蜜經 卷下 受持品第七, 仁王護國般若經 卷下 奉持品第七

는 것처럼 法에 의하여 正法을 恭敬 尊重 觀察하며 守護하여 宜行則行하고 宜捨則捨하며 貪瞋痴 등의 非法을 짓지 않고 十善을 修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리하여 以正治國으로 無有阿枉하고 道로써 治國하여 護諸衆生 즉 以安百姓하였다고 보겠다. 眞興王이 말한 天(乾)道와 道는 法과 같으며 正法의 行化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에 碑文의 “自惟忖撫育新古黎庶猶謂道化不周恩施未有……”에서, 國民을 撫育함에 있어서 道化를 두루 미치고 恩施가 배풀어져야 한다는 眞興王의 思想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우리는 轉輪王의 “以道開化 安慰民庶”<sup>69)</sup> “以道治國 護諸衆生” “以正治國 無有阿枉”등과 眞興王의 “道化를 널리 미치게 한다”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면 道化는 말할 것도 없이 正法의 治化, 正道의 開化일 것이다. 그리고 또 恩施에 대해서도 轉輪王의 “慈育民物 如父愛子 國民慕王 如子仰父.”<sup>70)</sup> “……諸人民 沙門 婆羅門과 下至禽獸에 皆當護視하며 國有孤老에 當極給之하고 貧窮困劣有來取者도 慎勿違逆한다”는 것에서 그 內容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여기서 轉輪王의 “慈育民物”과 眞興王의 “撫育新古黎庶”가 恰似함을 보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碑文의 “巡狩管境訪採民心……爲國盡節有功之徒 可加賞爵以章勳勞”에서 眞興王의 領內 巡行과 그 意義를 보게 된다. 이러한 國內 巡行은 역시 轉輪王에서 볼 수 있으니 “吾欲諦觀 國土人民安樂無患”하고 巡行에 나섰다는 것이다.<sup>71)</sup> 이 巡行은 佛敎에 있어서 理想政治 또는 理想王의 思想에 받드시 隨伴되었던 것인 모양이니 印度의 佛敎王이며 實際的 轉輪王이라 할 阿育王(Aśoka)도 巡行한 事實을 그의 摩崖 法勅에서 보여 주고 있다.

“……天愛喜見王(阿育王 自身)은 灌頂 10年을 지나서 三菩提에 가다. 이에 의하여 이 法의 巡行이 비롯되었다. 이 때(巡行時)沙門·婆羅門을 訪問하고 布施를 하며, 耆宿을 訪問하여 金錢을 配與하고, 또 그 地方의 蒼生을 引見하여 法의 教勸을 하며, 그리하여 그에 適合한 法의 試問을 한다. 爾來 이것이 天愛喜見王의 (治世의)後期에 있어서의 愛樂으로 되었다.”<sup>72)</sup> 이것과 眞興王의 巡狩事實과를 比較해보면 너무나 비슷한 共通點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眞興王의 巡狩碑文에서 王의 國家觀과 政治思想을 보았다. 이 碑文에 보면 앞에서 摘出한 本文에 이어서 王을 隨駕한 者의 名單이 列記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隨駕大臣의 이름 앞에 가장 먼저 “沙門道人 法藏慧忍”의 이름을 보게 된

69) 註 ㉔

70) 註 ㉕

71) 同上

72) 宇井伯壽 譯 ‘阿育王刻文’ 第一類 摩崖法勅, 甲, 十四章法勅의 第八章(南傳藏經 第65卷 阿育王刻文 pp.19~20)

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王의 巡行이 阿育王처럼 法의 巡行이며, 轉輪聖王의 巡行과 같은 性格임을 더욱 굳힐 수 있으리라 보며, 거기에 담겨져 있는 思想도 佛敎的이라는 것을 立證해 주고 있다 하겠다.

眞興王은 지금까지 본 轉輪聖王思想은 물론 佛敎의 國家觀과 政治思想에 의하여 佛敎理想國을 實現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것 외에 經典에서 볼 수 있는 佛敎의 國王·王道觀 그리고 治國思想을 몇 가지 參考로 덧붙여 보려 한다.

“王者는 民之父母라 以能依法으로 攝護衆生하며 令安樂이니 故로 名之爲王이라. ……王者는 得立以民爲國이므로 民心이 不安하면 國將危矣라. 是故로 王者는 常常憂民하고 如念赤子하여 不離於心으로 當知國內人民苦樂하라. ……”<sup>73)</sup>

“行法行王은 於諸衆生에 生八種心하나니 何等이 八種인가? 一者는 念諸一切衆生에 如念子想하며, 二者는 念於惡行衆生에 如病子想하며, 三者는 常念受苦衆生에 生大慈心하며, 四者는 念受勝樂衆生에 生歡喜心하며, 五者는 念於怨家衆生에 生護過想하며, 六者는 能於親友衆生에 生覆護想하며, 七者는 能於資生之中에 生如藥想하며, 八者는 能於自身에 生無我想하나니라.”<sup>74)</sup>

그리고 增一阿含經의 結禁品에는 國王이 王位를(또는 國家를)오래 保存하지 못하는 法으로 十法이 있고 오래 保存할 수 있는 法으로 열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久存의 十法을 略舉한다면 다음과 같다.

“第一에 國王은 不著財物하고 不興隕患하여 亦復不以小事로 起怒害心하며, 第二에 受群臣諫하여는 不逆其辭하며, 第三에 常好惠施하여 與民同歡하며, 第四에 以法取物하고 不以非法하며, 第五에 不著他色하여 恒自守護其妻하며, 第六에 亦不飲酒하고 心不荒亂하며, 第七에 亦不戲笑하고 降伏外敵하며, 第八에 案法治化하여 終無阿曲하며, 第九에 與群臣和睦하여 無有竟爭하며, 第十에 無有病患하여 氣力強盛해야 한다.”<sup>75)</sup>

이와같이 說하고 있는 佛經에서는 또 “天下에 多道나 王道가 爲大로다, 佛道는 如是最爲其上이니라.”<sup>76)</sup>고 있어, 佛敎에서 王道를 매우 크게 보며 重要視한 것을 알 수 있고 佛道는 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思想이 결국은 正法의 治化·正法의 聖王思想을 結果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아 眞興王은 그 生涯도 奉佛者로서 一貫한 것처럼, 政治도 佛敎의 王道思想과 國家觀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특히 王의 巡狩碑銘文은 그것을 立證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73) 註68의 p.330

74) 同上의 第五之三 p.338

75) 增一阿含經 卷第四二 結禁品第四六 第7經(大正藏經 第2卷 p.778)

76) 般泥洹經 卷上(大正藏經 第1卷 p.177)

### Ⅲ. 皇龍寺 丈六說話와 眞興王의 佛教의 位置

#### 1. 說話와 그 內容·思想

三國遺事<sup>77)</sup>에는 眞興王의 佛教를 알게 하는 다음과 같은 說話를 傳하고 있다.

眞興王이 皇龍寺를 創建한 뒤 오래지 않아 海南에서 一巨舫이 떠와서 河曲縣의 絲巖(蔚山谷浦)에 닿았다. 그 배 안에는 “西竺 阿育王이 黃鐵 5萬7千斤과 黃金 3萬分을 聚하여 釋迦三尊像을 鑄成하려다 未就하여 ‘有緣國土에 이르러 丈六의 尊容이 이루어 지이다’라 祝願하고 金鐵을 三尊像의 模型과 함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운다.”는 牒文이 있었다. 縣吏가 이를 王에게 알리매 王은 그 縣의 城東爽塏之地에다 東竺寺를 創하여 模型三尊像을 安置하고, 그 金鐵은 京師로 옮겨서 大建 6年(眞興王 35年, 574) 3月에 丈六尊像을 鑄造하여 一鼓而就하였다는 것이다. 別本에 의하면 西竺 大香華國의 阿育王은 佛滅後 百年間에 生하여 佛陀眞身에 供養 못한 것을 恨하고 金鐵을 斂化하여 세 번이나(眞身을) 鑄成코자 하였으나 無功하였다. 때에 王의 太子가 홀로 이 佛事に 參預하지 않았으므로 王이 詰責하매 太子는 “獨力으로는 이루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不參했읍니다”하였다. 이에 王은 金鐵을 큰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다는 것이다. 이 배가 南閻浮提의 16大國·500中國·10千小國·8萬聚落을 안간 데 없이 두루 돌았으나 모두 鑄하여 이루지 못하고, 最後에 新羅國에 이르렀던 것인데, 眞興王이 文仍林에서 鑄하자 佛像이 홀륭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說話는 佛教說話로서 그 속에 많은 含蓄으로 우리에게 新羅人의 生소한 思想과 精神의 事實을 傳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客觀的 歷史를 떠난 說話文學의 解釋에 의하여 그 內在의 眞意를 考察하려 한다.

이 한 篇의 說話 속에서 우리는 新羅의 本位思想과 佛緣國說 그리고 眞興王佛教의 價値와 位置 등을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新羅의 優位性 즉 新羅本位思想이라 할 것이다.

印度의 廣大한 國土를 最初로 統一하여, 그 때까지도 恒河流域의 一部地方宗教에 不遇하던 佛教를 全印度는 물론 世界의 宗教로 되게 한, 正法의 治者며 佛教王인 阿育王<sup>78)</sup>이, 세 번이나 鑄造에 失敗하고, 또 南閻浮提의 모든 곳에서 다 이루지 못한 佛像

77) 遺事 塔像第四 皇龍寺丈六

78) 阿育王傳 7卷(大正藏經 第50卷 pp.99~131)

阿育王經 10卷(同上 pp.131~170)

一切善見律註序(南傳藏經 第65卷 pp.55~67)

阿育王刻文(同上)

阿育王事蹟(森, 大村)

등 外 많은 文獻에서 阿育王의 史實을 볼 수 있다.

을 오직 新羅에서 북 한 번 울리고 훌륭히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新羅가 가장 훌륭하다는 新羅中心의 本位精神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說話에서 新羅의 佛緣國土思想을 볼 수 있다. 阿育王이 有緣國土에서 丈六尊容이 이루어지기를 祝願하고 보낸 金鐵이 아무데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오직 新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新羅가 바로 有緣國土라는 것이 된다. 즉 新羅는 佛緣이 있는 國土라는 것이다. 同說話의 뒤에 곁들어 있는 이야기로서 善德王 時의 高僧 慈藏의 在唐 時에 中國 五臺山에서 文殊眞身에게 들었다는 것으로 “汝國 皇龍寺는 釋迦佛과 迦葉佛의 講演之地이니 그 宴坐石<sup>79)</sup>이 아직도 있다. 그러므로 天竺 無憂王이 黃鐵若干斤을 모아 바다에 띄운 것이 1,300餘年을 지나서 新羅에 이르러 丈六像이 鑄成되어 其寺에 安置하였으니, 이는 佛緣이 있기 때문이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더욱 佛緣國土說을 明確히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또 처음 배가 닿은 곳에 東竺寺를 지었다는 것도 西竺(印度)과 對稱한 것으로 佛陀의 生緣國인 印度는 西天竺이고, 新羅는 東天竺(東方의 佛國)이라고 表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新羅人들은 前佛 時의 伽藍墟가 京師 안에 七處나 있다고 믿었으니,<sup>80)</sup> 결국은 新羅本位의 佛有緣思想이 本地垂跡說까지 내게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佛緣國土思想이 慈藏에 이르러 明確히 說明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sup>81)</sup> 이 說話는 그러한 新羅佛緣國土說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2. 眞興王의 佛教的 位置

皇龍寺 丈六像의 說話에서 이상과 같이 優位性을 나타낸 本位說과 佛緣國土說 등의 思想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眞興王의 偉大性과 眞興王이 이루어 놓은 그 佛教의 價値와 位置를 보게 된다. 이 說話에서 우리가 특히 留意할 점은 阿育王이 鑄成코자 했던 佛像은 普通의 金銅佛像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佛在世 時에 태어나지 못하여 眞身에 供養 못한 것을 恨한 阿育王이 金鐵을 모아 丈六尊容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에서 阿育王이 鑄成하려 한 佛像은 金鐵佛像이면서도 그것만이 아닌 眞身이었다는 뜻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眞身에 供養하고 싶어서 鑄成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有緣國土에 가서 丈六의 尊容이 이루어지이다”하고 祝願하여 바다에 띄운 것이다. 이처럼 阿育王이 이루지 못한 佛像을 新羅의 眞興王이 文仍林에서 鑄成함에 一鼓而就로서 槓好畢備한 丈六의 尊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阿育王이 이루지 못한 眞身을

79) 이 迦葉佛宴坐石에 대해서는 遺事 卷三 塔像第四 迦葉佛宴坐石에서 詳說되어 있다.

80) 遺事 興法第三 阿道基羅에 引用된 ‘我道本碑’所傳  
海東高僧傳 流通一 釋阿道에 引用된 ‘朴寅亮 殊異傳’所傳

81) 趙明基博士 著 ‘新羅佛教의 理念과 歷史’ p.62

眞興王이 이루었다는 뜻으로도 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佛像에 假託하고 있지만, 그 眞意로 볼 때 眞身이라는 그 意義가 提示하는 思想性에 의해 이것은 하나의 眞身佛의 完全한 面貌 또는 眞佛說의 敎法이라고도 解釋되어진다. 다시말해서 이는 完全한 佛敎를 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阿育王은 篤實한 信佛王으로서 正法의 政治를 實施하면서 眞正한 佛敎를 再現시키려 努力하였음으로이다. 이리하여 阿育王은 많은 佛事를 일으키며 正法의 治化 등으로 佛在世 時의 眞佛敎를 地上에 實現시키려 하였으나 끝내는 完成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띄워 인간 곳 없이 두루 가게 했다는 것은 海外各國에 正法의 大官(布敎使節)을 派遣하여 佛敎를 널리 傳播한 것을 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하여 新羅에까지 到達한 佛敎는 眞興王에 의해서 그 完成을 보았다는 것이다. 眞興王은 佛敎國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는 佛敎精神을 國政에 잘 反映시켜 風月道를 이르게 써 國民思想을 淨化 團合하여 결국은 民族統一을 完成할 수 있게 하였고, 그의 死後도 國祚가 繁昌하고 佛法이 더욱 燦然한 빛을 發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阿育王은 一生一代에 自身만 그렇게 心血을 기울였으나 晩년에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가 病中에 있으면서 佛法을 위해 大施를 하려 할 때 그의 孫子이던 貳摩婁(또는 三波地)가 惡臣의 말을 듣고 庫藏을 閉하여 王의 뜻을 妨害하였던<sup>82)</sup> 것이다. 그리고 阿育王이 死한 後 王의 後孫에 弗舍蜜多라는 王이 即位하여 世間에 널리 이름을 떨치려고, 阿育王이 護法王으로 널리 알려진 것에 反해서 自己는 惡毒하게 破佛하므로써 이름을 얻고자 天下의 衆僧을 殺害하고 寺院을 破毀하여 佛法을 全滅시키려 했다. 그 후 그가 鬼神에게 壓殺되자 王種이 斷絶되고 말았다<sup>83)</sup>는 것이다. 이와같이 印度의 大佛敎王인 阿育王은 결국 그 事業을 完成하지 못하고 그의 死와 더불어 그토록 애썼던 一生의 護法大事業은 虛無하게도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며, 그 王朝까지도 滅亡하고 만 것이었다. 그와 反對로, 眞興王은 그가 닦아 놓은 新羅의 佛敎를 그 後孫王들이 더욱 保護하고 發展시켜서 民族的으로는 大統合을 成就하고 新羅의 佛敎를 黃金時代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 點은 이러한 眞興王의 偉業과 佛敎의 位置와 價値를 阿育王과 比較해서 더욱 들어낸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新羅佛敎의 優秀性을 마려해 주 眞興王의 位置를 보여 주고 있으며, 新羅佛敎의 方向을 定한 王의 佛敎의 價値를 나타내어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82) 阿育王傳 半菴羅果因緣(大正藏經 第50卷 p.110)

阿育王經 半菴摩勒施僧因緣品第五(同上 p.148)

83) 阿育王傳 (同上 p.111)

阿育王經 ( " p.149)

## 結 語

眞興王의 佛敎에 關係되는 事實은 可及的이면 한 자리에 다 모아 보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整理에 無理가 가서 複雜하게만 되어진 것 같다. 眞興王의 佛敎史實은 그 당시의 佛敎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新羅 初期佛敎의 全面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嚴密히 말해서 現今 우리가 文獻을 통해서 正確히 볼 수 있는, 韓國佛敎의 全般에 걸쳐서 初期의 佛敎 內容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眞興王의 佛敎가 아닐까 한다. 그만큼 三國時代의 初期佛敎에 관한 資料가 稀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眞興王佛敎가 그대로 韓國 初期의 佛敎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不完全하나마 眞興王의 佛敎關係資料를 모아서 整理하고 評價하여 당시까지의 佛敎思想을 찾아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王의 佛敎思想에 一貫하고 있는 轉輪聖王思想과 彌勒思想 그리고 護國思想을 보았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非但 眞興王의 一代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全新羅佛敎의 指向點을 提示해 주고 新羅佛敎, 나아가서는 온 韓國佛敎의 方向을 定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護國佛敎와 理想國家 建設의 佛國土思想·現世利益思想·佛緣國土思想 등은 眞興王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佛敎의 根柢가 되어 흐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業績이나 丈六說話에서 우리는 眞興王과 阿育王의 비슷한 점을 보게 되며, 여기에서 眞興王은 新羅의 阿育王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新羅人들은 新羅의 眞興王은 그 佛敎로 보나 福德으로 보나 印度의 大佛敎王 阿育王보다 더 偉大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新羅人들은 自主的이었고 또 自信이 넘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서 매우 痛決하고 重要한 일이 아닐 수 없다.